

비싼 입장료에 수학여행 기피

“여수가고 싶다” 광주 6%·전남 25% 조직위 가격 할인 확대 등 대책 고심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에 대한 일선 초·중·고교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개막 후 관람객 수는 목포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대했던 일선 학교의 단체 관람마저 적을 것으로 보여 박람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관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학여행을 여수세계박람회로 갈 의향이 있는 학교는 53개교, 1만6000명이었다. 이는 시교육청 관내 305개교 전체 학생 수 24만8000명 중 고작 6%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전남도교육청의 조사에서도 286개 학교에서 7만여명이 박람회 관람 의사를 나타냈다. 관내 1391개교와 분교 99개의 총 학생 27만9000명 중 25%만이 박람회에 관심을 나타냈다.

교과부의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북 등 다른 지역들은 더욱 저조한 것

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아무리 국가 행사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학생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람회를 단체 관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람회 관람 선택권이 학교가 아니라 학생 등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박람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학교 단체 관람객도 유치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또 관광버스 계약, 예산 책정, 도시락 준비, 안전 사고 대비 등 학교 측에서 신경 써야 할 운영상 문제도 많아 교사들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지역 초등학교 6학년(1인당 10만원)과 중학교 2학년(1인당 15만원) 등 수학여행 대상자 전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경비 부담이 없는데도 박람회를 찾겠다고 답변한 학

교수는 적었다. 시교육청은 단체 관람 희망 학교들이 늘지 않자, 최근 학기 중에 박람회를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대대적인 박람회 홍보를 하고 있다.

학생 단체 관람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다. 지난 3월 열린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교과부는 학생 단체관람료 인하를 요구했다.

타지역 학생들의 경우, 당일 관람이 힘들기 때문에 수학여행 등의 코스에 박람회를 넣어야 하는데 학생 단체관람료 1만7000원(청소년)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여행사들도 수학여행 단골 코스인 경우 하루 1만원이면 다수의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데, 박람회는 입장료가 비싸고 여수까지 오려면 기름값 등 경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유명 수학여행지에서 주는 혜택과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선뜻 여수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21일 “단체관람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국내 여행사들과 협의해 가격 할인 폭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22일 프랑스관 내 개선문이 설치된 수족관에서 로봇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렘브란트 ‘야경’ 보고 아프리카 원시미술 만나고...

네덜란드 등 미니 갤러리 ‘눈길’

박람회에는 첨단 기술만 있는 게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 호주, 네덜란드 등 국가관들이 미니 갤러리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관은 전시관 입구에 발리 미시의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하

고 있다. 호주 토레스 해협 모야섬에서 태어난 발리 미시는 지리학자이자 예술가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은 진흙 속의 게, 멧그로브, 거북이 등 해양 생태계를 라이노컷(인쇄용 리놀륨 판면에 인쇄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

들이다. 콩고민주공화국관과 앙골라관은 아프리카 미술을 선사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전시관에서는 기이한 가면, 조각상, 전통 문양을 담은 접시 등 아프리카 원시미술을 만날 수 있다.

앙골라 전시관에서는 30일까지 현대회화 미니 전시회가 열린다. 아르만

다 알베스, 에바딜스 페레이라 등 앙골라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그린 초현실적 바다 풍경, 심상들을 볼 수 있다.

또 네덜란드관에서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인 ‘야경’,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네덜란드의 대표 작품 80여 점의 복제품을 선보인다.

튀니지관도 전체가 미술관으로 꾸며져 있다. 튀니지의 장인들이 한 짚 한 짚 수놓은 명품 양탄자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대 조각상들을 전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해양·기상학 국가 총회 오늘 개막

52개국 300여명 참가... 31일까지 열려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서 23~31일 해양기상 분야 대표 국가 총회인 ‘제4차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제이콤·JCOMM) 총회’가 개최된다.

국제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3차 제이콤 총회에서 기상청,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유치한 것이다.

제이콤은 세계기상기구(WMO)와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 총회로 4년마다 열

린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유치하다 보니 이번 제4차 총회는 3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제이콤 총회에서는 전 세계 52개 회원국에서 300여명의 해양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가해 해양관련 재해, 해양기상 서비스 등에 대한 각국의 활동을 보고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이콤 공동의장 선거, 국제 공동 프로젝트 발의, 국제 해양기상 전문가단 구성 등 해양기상 분야에서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 및 전략을 결정한다.

개막식에는 제이콤 공동의장인 피

터 맥스터 박사, 미셸 자로 사무총장, 웬디 왓슨 라이트 IOC 사무총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조석준 기상청장, 김근수 여수세계박람회 사무총장, 김충석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다.

총회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25일 전 세계의 해양기상 최고 전문가 61명이 각국의 최신 해양기상과 관련한 발표를 이뤄진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해양기상 관측·예측·서비스 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또 26~27일에는 순천만과 낙안읍성 등 지역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28~31일 국가 대표단 총회가 열려 해양기상 국제 협력 및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14개 의제에 대한 검토와 국가별 발표가 준비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자동차그룹관 인기 ‘짱’

누적관객 4만 돌파 25일 ‘Big 5 콘서트’

여수세계박람회에 독립기업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관이 누적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

현대그룹관은 22일 “지난 19~20일 이틀간 누적 관람객 수가 4만 명을 돌파하며 박람회장 내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아쿠아리움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현대그룹관은 짧은 대기 시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다른 주요 전시관이 입장을 위해 예약



제와 긴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자동차그룹관은 10분의 짧은 간격으로 매회 300명 이상 입장한다.

‘뮤지컬 K 팝쇼’, ‘판타스틱 매직’, 로봇 퍼포먼스 ‘휴모로프의 꿈’ 등 93일 동안 총 900여 회가 넘는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

다.

오는 25일에는 엑스포장 내 해상무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날 Big 5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승환, 김건모, 세븐, 엠블랙, 2AM, 시크릿, 박지민, 이하이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시의 날’ 초계함 임항

관람객 승선 행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시의 날’(22일)을 맞아 포항급 초계함인 여수함이 박람회장에 임항했다.

지난 1988년에 취역한 1273ㄷ급인 여수함은 길이 88m, 폭 10m 규모로 최대속력 31노트(58km/h)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포항급 초계함 24척 중 하나로 주요 활동목적은 대잠전과 경계 임무활동, 호위함이나

구축함 보조역할 등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초계함인 여수함은 이날 박람회장 인근 선박 전시부대에서 관람객 승선 행사를 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의 이름을 딴 여수함 임항 환영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장병들(115명)에게 박람회장 입장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숯불구이전문점

KOREA PORK



**파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전문점 입니다.

딱! 2달이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취급메뉴	점심특선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250g	갈비정식 5,000원 뽕면 4,000원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200g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200g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200g	

읽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 우선반** 우리 고장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품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자재 비교 불가합니다.
- 중반**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등이 탁월합니다.
- 당일매** 타업종으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교체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하실 수 있으며 업주께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하실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내년반** 본사인 (주)사랑방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오치본점	062-264-5343	5월 오픈 성업중!
체인점 문의	062-265-8900	본부장직통 010-7118-5114